# 모임으로서 교회인가 인간집단인가

## (빌1:1~11)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임으로서 교회인가 인간집단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상에 처음 생길 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말 할 것도 없이 교회는 예배당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모이면 교회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수가 모이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여야 교회인데 이 모임에 엄청나게 큰 부작용이 따른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모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내분의 선봉에 서는 분들을 보면 한 번도 모임에 빠지는 일이 없는 분들입니

다.
그냥 자기 일이 바빠서 주일날 겨우겨우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은 절대 이 싸움에서 선봉에 서는 일이 없습니다, 싸움에 큰 관심도 없고.
이거 참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지요.
그리고 혼자서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모임에 의지해서 아주 담대하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기가 죽어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모임을 밟고 서서 대장노릇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모임의 부작용이에요.
바벨탑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임의 산물입니다.
고린도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게바 파다,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여야 교회지만 모임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로 인해 교회는 또 망해갑니다.
장로 되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이라는 소사이어티 안에서 높은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장로 되고 싶어 하는 마음에 봉사도 하고, 장로 되고 싶은 마음에 출석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장로 된 사람들이 교회를 치리합니다, 망해가는 거죠.

그러면 참된 교회의 모임은 어때야 되느냐?
모임이 인간집단으로 변하는 이유는 교회의 모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모여야 돼요, 마음이.
마음이 모이면 교회고 몸만 모이면 인간집단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규정했듯이 모임도 마찬가지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그것이 혈과 육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로서의 모임이 아니라.
마음이 모여야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모이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로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를 읽는데,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빌립보서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모여야 진짜 교회라고 하면 마음이 어디에 모이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상기합니다.
하늘이 있고 그 밑에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다 쏠리고 향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하늘과 공중 사이에는 철통같은 막이 쳐져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전혀 공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므로 공중에 머물고 있는 우리 마음으로 하늘의 빛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몸으로 맺는 모든 행동의 열매들이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맺혀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옆에 앉아계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공중에 새로운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긴 공간이 하나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모인다는 것은 바로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생긴 이 공중 안에 있는 공간으로 우리 마음이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여기에 모인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만 명, 10만 명이 모여도 그건 인간집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공간, 지금 공중에서 유일하게 하늘의 빛이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주님께서 밑에서부터 부활하셔서 뚫어내셨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그곳에서 하늘의 빛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 몸이 모였습니다, 천 명, 만 명, 10만 명도 모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마음은 내 사업장에 가있고,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가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된다는 말씀을 하면 '아멘!' 합니다.
자녀들이 잘될 거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병이 나을 거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전부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이 다 가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몸은 모여 있지만 마음이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서 만들어놓으신 공중에 있는 그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거기에 모인 자들이 교인들인데, 마음은 다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건강과 내 인생의 일들에 다 가있지, 주님께서 만들어놓으신 공중에 있는 그 공간에 가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땅에서 각기 자기의 관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집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목사님들이 부추깁니다.
마음이 땅에 가있는 걸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고 공중으로 오도록 하지를 못하고, 땅에 가있는 마음의 관심거리들을 교회에 오면 잘 얻을 수 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해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기 집단이고 인간집단, 거짓말쟁이들의 모임이 돼버렸습니다.
왜 거짓말쟁이입니까?
위선자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딴 걸 좋아하는 게 위선이라고 했어요.
일단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려면 마음까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는 돈을 좋아했으므로 위선자라고 한 겁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가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는데, 이 빌립보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사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도바울은 문제가 있는 교회든 문제가 없는 교회든 다 사랑했어요, 마치 못난 자식 잘난 자식 모두 사랑하는 부모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모습은 참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사랑은 정말 눈에 띠는 점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5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와 똑같은 내용을 7절에 뭐라고 반복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5절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까지'라는 것은 빌립보서가 쓰여 진 장소를 암시합니다.
로마감옥에서 2번 수감생활을 하는데, 지금 로마감옥에 1차 수감생활을 할 때입니다.
빌립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반도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의 동편에 있고, 사도바울은 그리스반도를 횡으로 가로질러서 아리안 해를 넘으면 이태리 반도가 나오고 이태리 반도를 횡으로 가로질러 서쪽 끝에 로마가 있는데 그 로마에 지금 갇혀있습니다.
그 옛날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빌립보교회가 바울이 로마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바울을 생각하면서 온 교회가 다 돈을 모아가지고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선교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신약성경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첫날부터' 이것은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교회가 세워졌잖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귀신들려 점치던 어린 여자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서 낫게 했다가 옥에 들어갔고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자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나고 했잖아요, 그 빌립보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로마에 갇힌 상태는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도착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도왔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도운 것이 왜 인상적이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바울이 하신 말씀, 고린도교인들에게 예루살렘교인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좀 더 빨리 만들어서 보내자고 권면할 때 예를 들었던 교회가 마케도니아지역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빌립보교회가 중심이지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교회에 많은 환란이 있어서 시련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극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으면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교회는 너무너무 부자도시의 부자교회입니다.
도시가 부자면 교회가 부자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는 동쪽이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와 서쪽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의 헌금이 달라요, 그러니 고린도교회가 부자일 수밖에 없죠, 상업의 중심지였으니까.
근데 구제헌금 하자고 한 게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헌금이 걷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교회는 끊임없는 환란과 시련이 있었고, 극한 가난, 도대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극한 가난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교회에서는 사도바울이 한 푼도 선교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 선교헌금 쪼금 내고 비뚤어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을 받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사도권의 의심까지 받아가면서도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교회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아서 내는 헌금은 다 받은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빌립보교인들은 극한 가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도바울을 염려할까요?
아니, '내 코가 석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교인들처럼 있어도 헌금을 안 하는데, 내 코가 석 자인데도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단지 물질을 보냈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중에 생겨난 그 공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빌립보나 고린도나 모든 도시의 교회들이 한 곳에 모이는 요즘 같은 형태,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도시 안에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한꺼번에 모이지도 못해요.
근데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꺼번에 모이고 제대로 모였던 것은 바로 이 세상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 세상 물질들이 잉여물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의 빛이 내려옵니다.
황금빛이 비쳐지기를 바라면서 땅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땅에서 마음이 죽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공간 안에 모여 있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늘의 빛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져있는 물질은 일용할 양식 이외의 분은 모두다 하나님의 뜻에 드려지게 되고 잉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뭡니까?
하늘의 빛이 쏟아지는 공간 안으로 마음이 들어갔고, 그 공간 바깥의 공중은 지금 하늘과 우리 마음이 있는 공중 사이가 완전히 철통같이 막혀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흑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만들어놓으신 이 공간 안에만 하늘의 빛이 들어옵니다.
하늘의 빛이 들어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빌립보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후원금을 계속 보내고 있는 빌립보교인들을 향해 사도바울이 '너희가 나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사역에 전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가난한 빌립보교회가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공간 안에서 하늘의 빛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은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대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인들을 향해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바울의 마음도 그곳에 가있어요, 이 땅에 있는 빌립보교회에 가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도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가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뵐 때, 주님이 빌립보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심장으로'라는 겁니다.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다 잉여분으로 여겨서 주님의 뜻에 내놓고 사는 저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마음이 사도바울에게 전이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고,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들 그리고 새신자까지 마음을 어디에 두고 모이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만들어놓으신 그 공간에, 목사님이 한번이라도 '우리가 그곳에 모입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요, 건물로 된 예배당 좁아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없어도 상관없어요.
가정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몸이 흩어져 있는 건 문제가 아닌데, 마음이 그곳에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곳에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임에 힘쓰라, 무슨 모임에 힘쓴다는 거예요?
맨날 구역예배요 목장이요 모여서 예배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다 세상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맨 세상 얘기만 할 거면 모이지 마세요.
모여서 맨 김 장로 헐뜯고 박 권사 헐뜯고, 누가 대장이고… 그럴 바엔 모이지 마요.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다, 모이기 때문에, 몸만 모이기 때문에.
마음이 모여야 돼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돼있어요,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가 만들어놓으신 그 공간 안에 마음이 머물면서 빌립보교회와 바울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이 하는 모든 전도사역에 사랑과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자꾸 우리는 착각합니다, 몸이 많이 모여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 없어도 된다니까요.
지금 상가 교회 조그맣게 하고 계시는 목사님 계십니까? 근데 월세를 막 올려달라고 합니까?
한 번 시도해보세요, 가정교회로 바꿔보세요, 월세로 모이는 그 공간 없애버리고.
빌립보나 고린도나 다 가정교회로 모였으니까.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만들어놓으신 공중에 있는 그 공간에 모이면 되는데, 그 공간에는 백만 명, 1억 명, 60억이 모여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교회.

우주적으로 보편적인 교회, 그곳에 모이는 것이 진짜 교회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떡하든지 교인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local church의 예배당에 묶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만들어놓으신 공중의 공간으로 모이게끔 하는 일에 전념해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교회에 대한 서신의 머리 부분에서 빌립보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앎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제대로 마음이 모여야 할 곳에 모이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몸만 모이고 마음은 각자 세상의 관심거리로 흩어져있으면서 인간집단이 되지 말게 하시고, 혹시 몸은 흩어져있을지라도 마음은 주님께서 공중에 만들어놓으신 그리스도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 모임으로서 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윤곽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